

여객기 잔해 앞, 활주로 가득 메운 오염

제주항공 참사 유족 현장 첫 방문

그간 '유해 수습·수사' 들어 통제 대표단·정부 협의해 출입 성사 약식 제사 치르며 슬픔 토해내 쏘희생자 이름 찾아...장례 돌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 추모 의식을 치렀다. 희생자들의 신원도 DNA 검사를 통해 모두 확인돼 시신을 인도받은 일부 유가족은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1시쯤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간 희생자 수습과 수사 등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탓에 유가족들은 공항 대합실 등에서 수습 상황을 지켜 봐야 했다. 새해를 맞아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유가족 대표단과 정부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떡국, 과일 등과 함께 간단한 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거나 헌화하는 등 약식 제사를 진행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전남 무안 공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부터 한 희생자당 가족(구성원) 최대 4명으로 제한해 사고 현장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조치했다"며 "떡국과



참사 현장에서 절하는 유가족 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절을 하고 있다.

굴 등 간단한 상차림과 국화를 준비했다. 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절을 올리면 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있는 여객기 잔해 앞에서 울음과 슬픔을 토해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다 울음을 참지 못하거나, 오염하다 다른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가누는 모습도 있었다. 추모객들도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함께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무안공항 내

함동 분향소를 비롯해 공항 곳곳에는 양말, 생필품, 라면, 간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주변 정리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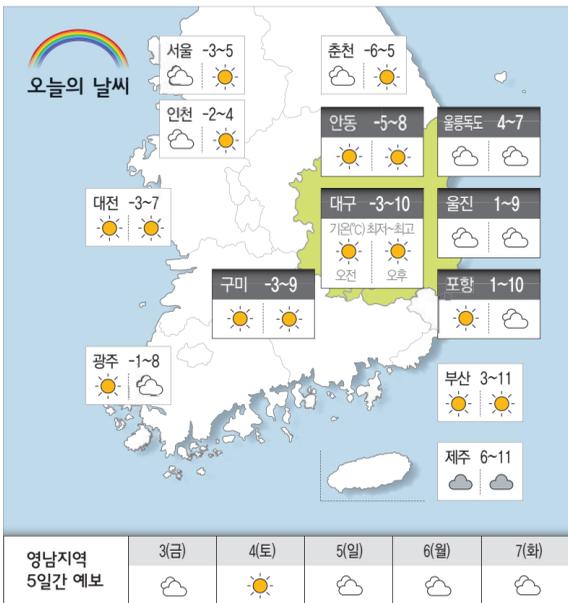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다. 훼손 정도가 심했던 4~5명의 희생자는 정밀 DNA 검사 등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이 확인한 신원을 유가족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된 희생자는 모두 11명이다.

희생자 1명은 서울, 10명은 광주·전남 지역 장례식장에 각각 안치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의 유가족은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은 이날 중으로 인도 가능한 40~50구의 시신을 분류해 유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지수 기자 index@maeil.com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1577-6622
-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사)-----1577-2500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688-0077
- 경북대학교병원-----1666-0114
- 영남대학교병원-----1522-3114

종합병원

- W병원-----1551-5119
- 파티마병원-----1688-7770
- 곽병원-----252-2401
- 구병원-----557-7119
- 천주성심병원-----790-0555
- 대구의료원-----560-7575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320-2500
- 경산중앙병원-----715-0119, 0129
- 드림종합병원-----640-8575
- 삼일병원-----659-3119
- 강남종합병원-----980-0018
- 세명종합병원-----819-8800
- 나사렛종합병원-----643-3119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054-743-6200
- 상주연세실버타운-----054-533-1600
- 연세한방병원-----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090804-종-14127호

APEC 정상회의 준비 박차, 경주시 135억 확보

2024년 하반기 특교세 156억 중... 시민 안전·지역 현안 사업비 포함

경북 경주시가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156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135억원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비용으로 활용된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리모델링(70억원) ▷미디어센터 건립(30억원)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20억원) ▷북천 하천정비(15억원) 등이다. ▷마을방범 CCTV 지능형시스템 구축(5억원) ▷문무대양면 권이리 도로사면 보강공사(3억원) ▷감포 덕곡저수지 보수보강공

사(3억원) 등 시민 안전 예산도 있다. ▷외동읍 종합복지관 건립(9억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및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억원) 등 지역 현안·주민 안전 사업도 포함됐다.

경주시 측은 이번 성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경주시가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은 물론,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준비는 물론, 주민 안전과 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대구경북 전문병원 12곳...W병원 2개 분야

굿모닝·에스·효성·우리들병원 등 의료질평가 따라 건보 수가 지급

대구경북 의료기관 12곳이 전문병원을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정되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115곳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전문병원은 ▷대구굿모닝병원, 포항에스병원(뇌혈관질환) ▷W병원(수지접합·관절) ▷효성병원(산부인과) ▷제일안과병원, 누네안과병원(안과) ▷구병원(대장항문) ▷보광병원, 서봉의료재단 보강병원, 우리들병원, 대구시티병원(척추관절) ▷대구자생한방병원(한방척추) 등 12곳이다.

특히 W병원은 수지접합과 관절 등 2개 분야에서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이화섭 기자 lhssk@maeil.com

당직 변호사 (2일)오현근 (3일)우성은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작명

053-241-3456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시민 여러분, 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구 건설인 모두가 새해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 외 회원일동

소망하는 일 다 이루어지는 2025년

당신의 새해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도약을 위해
경북건설인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박한상 외 회원사 일동